

“과거를 읽자” 교양역사책 ‘붓물’

올 3백여종 출간... 답사기·신문형식등 다양 흥미위주 구성 불교내용 논란소지 있어

최근 역사를 쉽게 풀어쓴 대중서들이 쏟아지고 있다. 올해만 해도 3백여종이 넘는 역사가 출간되었으며 내용·서술형식도 다양해 독자들의 기호를 충족시키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교양역사서가 불교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어 ‘불교 알리기’에도 적지 않은 효과를 주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에피소드 중심의 역사교양서다. <한국고대 지성사산책>(백산서당) <역사속의 역사읽기>(풀빛) <이야기 한국사>(청아) 등이 그것이다. 각 시대별 국가별로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사건이나 잊혀졌던 사건을 중심으로 전후의 시대상황이나 그에 따른 영향까지 서술해 보

재미있고 흥미롭게 역사를 읽게 한다.

대중적인 관심을 끈 불교역사서도 있다. 김상현교수의 <역사로 읽는 원효>(고려원) <한국불교사산책>(우리), 해봉스님의 <불교사 100장면>(가람기획), 김현준씨의 <이야기 한 국불교사 1>(효림), 정희행씨의 <인물로 보는 한국불교사>(밀알) 등이 주목을 받았다.

이밖에 인물중심의 서술을 시도한 책으로 <한국사의 주제

적 인물들>(여강) <이야기 인물한국사>(청아) 등과, 우리 역사를 보다 생생하고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 타블로이드 신문형식의 <역사신문>(사계절), 유적답사기형식의 <한국역사기행>(형설), 한시(漢詩)로 엮은 <한국사 기행>(범우사) 등 다양한 유형의 역사교양서들이 우리 역사를 재미있고도 쉽게 알리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역사교양서 출간 붐’은 역사 읽기의 대중

화는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적지 않은 문제점도 노출시키고 있다. 학문적 연원이 짧은 소장 학자들 중심으로 젊은 층의 독자를 겨냥해 흥미 위주의 추측성 글을 쓰다 보니 ‘역사의 소설화’라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 특히 불교관련 내용의 경우 지나치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감각적인 소재를 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차체에 불교사 서술의 대중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예를 들면 <100문100답 한국사 산책>(백산서당)의 △묘청은 정말 승려였나(승려가 아니라 도교의 도사였다) △신돈은 과연 음탕한 승려였나(정치적 희생양으로서 승려 출신이었을 뿐이거 정발이었다) 등의 내용과, <한국고대사 산책>(역사비

평사)의 △신라 이차돈은 순교자인가(당시 巫敎를 신봉하던 귀족세력과의 갈등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숙청되었다가 불교 공인후 신비화되었다) 등 한국 불교사상 중요한 사건을 다루기 보다는 흥미위주로 소재를 선택한 흔적이 엿보이는 책도 있다.

이와관련 한국교원대 김상현 교수(한국사학과)는 “최근의 역사교양서들이 학자와 일반교양인들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역사의 대중화에 기여한 반면, 기본사료와 학문적 연구성과를 소홀히 한 흥미위주의 아사류·소설류의 책도 적지 않다”면서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불교사학계는 일반 대중과 불자들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중적인 역사서를 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출판 화제

‘전통사상과 종교’ 영문판 발간

국제교류재단 불교등 한국사상흐름 분석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김정원)은 ‘해외에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의 문화유산 시리즈’ 제2집 <전통사상과 종교(Thought & Religion)>(영문판)를 발간했다.

제1집 <전통미술>에 이어 나온 이 책은 국내외 권위있는 학자·전문가 29명이 집필했으며 개관, 사상일반, 불교사상, 마을제, 무속신앙, 현대종교 등 7개부문에 걸쳐 우리 사상의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했다. ‘불교사상’ 편에는 △현대 한국불교·회통(정병조) △불교전설·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밝혀

라(최재욱) △한국선(현각스님) △불교와 초기 한국문학(이종찬) △사찰건축에 보이는 불교사상(법총스님) △현대 한국불교의 문제(이은운) 등 모두 8편의 글이 실려 있다.



국제교류재단

명사추천

‘사십이장경’

쉽다고 추천해 준 불서까지도 가까이 하지 못했음이 30년전 불교를 공부하던 나의 초심시절의 기억으로 새롭다. 그럴수록 내가 읽은 한 권의 법경양본 불서는 불교학을 하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에서 방향하던 나를 불교학으로 안내해 한 계기가 되었다.

<사십이장경(四十二章經)>, 현재 역경원장으로 계시는 월운(月雲)스님의 역사(譯書)인대 <불조삼경(佛祖三經)>이란 제목으로 장경이나 제제도 불품은 석판본(石版本)이지만 지금도 내 서재 한쪽에 당당히 자리하고 있다. <불조삼경>은 원래 <유교경(遺敎經)>·<사십이장경(四十二經)>·<위산경책(毘山鑿策)>을 지칭하는 것이나 이 책은 <사십이장경>에 <유교경>과 <위산경책(別業報略經)>과 <수심결(修心訣)>을 합본해 놓은 것이다. 어느것이건 불(佛)·조(祖)의 가르침이

의 배려로 낙양의 교외에 백마사가 창건되자 여기에서 역경에 종사하게 된다. 중국불교의 초전은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다가 <불조삼경(佛祖三經)>의 실이다. 따라서 이들은 중국에 최초로 불교를 전한 사람에 최초로 불교를 전한 사람으로 기록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에 의해 최초로 한역된 경전이 바로 이 <사십이장경>이기 때문에 중국



최성열 (조선대 철학과 교수)

불교근본 가르침 간략히 서술 비유 결들인 中최초한역 경전

아닐까만 이왕이면 전통적으로 불어오던 그대로 엮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은 불자로서의 성숙을 가져다 준 이 경에 대한 애착 때문이라.

이 경이 중국에 전해진 데는 여러 이설이 있으나 중국 불교의 초전을 거론할 적에 반드시 언급되는 중요한 경전이다.

후한(後漢)의 명제(明帝)는 영평(永平) 10년(서기 67) 서방으로부터 금인(金人)이 방관을 하면서 궁중의 마당에 내려오는 꿈을 꾸다. 군신들로부터 서방에 불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채을·진경·왕중 등 18인을 보내 불교를 구해오도록 했는데 중도에서 백마에 불상과 경전을 싣고 동행하던 가섭마등과 축법란을 만나 채을 등은 이들을 맞이하여 돌아온다. 처음 이들은 영빈관인 홍로시에 머물게 되었지만 명제

에 전해진 최초의 경전인 동시에 최초의 한역경전이란 역사적 위치를 차지하기도 한다.

이 경에는 불교의 근본적인 가르침 42가지가 아주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다. <아함경>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자칫 대승의 가르침이 소홀하게 취급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을 수 있으나 끝까지 읽어간다면 대승의 자비·인욕·보시는 물론 참회에 대한 내용까지 계승이나 비유로 적절하게 설해져 있다.

또 선종의 돈오사상도 포함하고 있어 선가의 사랑을 받아 <불조삼경>으로 존송되기도 하였다. 경전이 어렵고 복잡하고 지루하다는 선입견으로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도이라도 조촐한 법상을 대하듯 부담없이 불교에 친근해질 수 있는 그런 경전이 이 <사십이장경>이다.

생활속 불교 정리 “불법 손에 잡힐듯”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썩가 아니다’

해원스님(한마음선원 주지)이 은사인 대행스님의 법어를 정리해 엮은 <삶은 썩가 아니다>는 불교가 어렵고 특별한 종교가 아니라 ‘생명의 이치, 생활의 이치’를 통해 자연스레 드러나는 진리’임을 보여준다. 이 책은 사람들이 막연히 불교를 어렵고 현상적 삶의 가치들을 하찮게 여긴다고 오해하고 있는 관념을 없애준다. 불교는 결코 어렵지 않은 종교로 조금만 눈을 돌려 배워볼 생각을 한다면 불교처럼 쉽고 분명하여 배우는 가르침이 따로 없음을 느끼게 해준다.

이 책은 불법의 세계에 처음 들어온 입문자는 물론 삶의 고난에 합하여 하는 사람들을 위해 생활속에서 실천가

인양 한마음선원에서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고 있는 대행스님(한마음선원장)의 법어집이 지난 15일 서울대법회를 기점으로 출간됐다.



인양 한마음선원에서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고 있는 대행스님(한마음선원장)의 법어집이 지난 15일 서울대법회를 기점으로 출간됐다.

재계대표 38인의 내면세계를 살피기 위해 그들의 독서행태를 분석한 책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향신문 고승철 기자가 쓴 <최고경영자의 책 읽기>가 그것. 책은 한 사람

어떤 책을 즐겨 읽는가를 보여 주고 있어 관심을 끈다.

임창욱 미원그룹 회장이 청화스님(대안사조실)의 <정통禪의 향훈>을,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이형관씨의 <문화유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읽히고 있는 불경인 <묘법연화경> 즉, <법화경>은 방대한 내용과 어려운 한자로 인해 원문의 뜻을 명쾌하게 해석한 번역서가 많지 않다. 서강대 김희성교수

가르침을 일목요연하고 알기쉽게 해설했다. 특히 <법화경> 전체를 ‘인간주의의 가르침’으로 파악, 현대적으로 새롭게 해석한 점이 돋보인다. 저자 나와노 닛교는 1938년 재가불교교단 ‘입정교성



재계인사 38인 독서행태 내면 분석

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정신을 담은 지적재만 점에서 이 책은 다양한 독서 경험과 이를 통한 상상력이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길러 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우리나라 최고 경영자들이

산을 찾아서), 강병호 대우사장이 유홍준교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김준성이 수교 회장이 하루야마 시게오의 <대비혁명>을 각각 감명깊게 읽은 것으로 나타났다. <책만드는 집 8천5백원>

등 20여명의 불교학자가 공동 번역한 나와노 닛교의 <법화경의 새로운 해석>은 이같은 <법화경>의 난해함을 일거에 해소시켜 준다. 부처님이 ‘이것이아말로 가장 뛰어난 가르침이다’며 설하신 일불승의

회’를 창립하고 1979년 템플탐상을 수상한 세계종교자평화회의(WCPR) 庭野日敏 명예회장, 입정교성회는 8백만의 회원을 보유한 단채로 재일동포가 다수 참여하고 있다. <경서원 2만원>

유경노씨 소설 ‘서포 김만중’ 펴내

<구운몽(九雲夢)>의 저자 김만중의 일대기를 소설로 꾸민 <서포 김만중>(청한문화사)이 출간됐다.

美라이나생명보험 부사장을 역임한 작가 유경노씨가 쓴 이 소설에는 조선사회의 격동사

◇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립
2	저자는 맨날 고기볶고	우 화	좋은인원
3	그 마음을 바치라	김 재 용	영 화
4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법 정	샘 터
5	생활참선 건강법	박 회 선	문 창
6	한국사찰의 주련	권 영 한	전원문화사
7	활활달고 같이 가세	서 암	정 토
8	49재 공덕과 의미	권 집 부	이 바 지
9	영원한 대 자유인	강 정 진	경 서 원
10	신도포교지침서	오 성 일	불 광

구입문의: (02)737-0695

스승도 없고 제자도 없다. 이제 세상은 모두 다 도(道)를 놓아 버렸다!

THE LAST WORD

부처님의 유언

공파 스님 역해

부처님 자비의 극치! 말세의 중생들을 위해 남기신 금쪽 같은 최후의 유언!

아! 아! 말세의 중생들을 위해 끝까지 간곡하게 당부하신 이 유언은 부처님 자비의 극치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므로 제자가 된 사람들은 아니 두 발로 땅을 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이 최후의 말씀을 뼈에 새겨두고 간에 기록해야 할 것이다.

한국판/400면/값 7,000원

전국 유명서점 정판 판매중!

아주 소중한 비밀을 그대에게 전하니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라!

법구경 12

오소 리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법구경>은 나를 완전히 밝아보였다! 나는 허상의 옷을 모두 벗어던지고 그를 받아들였다! 값진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들!

그러나 그 방법을 몰라 애타우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깨달음의 스승 리즈니쉬가 <법구경> 강의를 시작했다. 신국판 / 전 2권 / 각권 값 6,500원

금강경

오소 리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버락처럼 단번에 자르는 지혜의 완성

2천5백 년 전 붓다가 돌았던 진리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금강경>은 다아아몬드이다. 세상의 모든 책 중에서 가장 소중한 보배이다! 삶에 찌든 우리에게 생과도 같은 활력과 생기를 부여하는 유익한 인생의 지침서!

신국판 / 432면 / 값 7,000원

출판권고를 보내주시면 잘 가꾸어 보겠습니다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다. 그리고 환생은 계속되고 있다!

환생의 체험 사례

나는 아흔여덟 번 환생했다

조 피서 지음 / 손민규 옮김

“어쨌든 그대는 다시 태어날 것이다. 환생의 법칙은 우리에게 <영원>을 선물한다.”

한때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받아들이기 힘든 때가 있었다.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었다. 환생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금에도 환생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가 불안전하다는 느낌이 더 많은 체험을 갈망하게 하고 이 갈망은 우리의 잠재력이 완전히 실현될 때까지 우리를 계속 지상에 돌아오게 만든다.

더 깊고 과학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환생의 다양한 믿음들에 대해 집중적이고 진지한 비교연구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나는 조 피서의 이 책을 소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 달라이 라마 -

신국판/280면/값 6,000원